롯데리아, 27일까지 '든든점심 플러스' 운영

롯데리아가 27일까지 점심시간 할인 프로모션인 '든든점심' 운영 시간을 2시간 늘린 '든든점심 플러스'를 진행한다. 든든점심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는 런치 가성비 프로모션이다. 든든점심 플러스는 치킨버거 세트, 핫크리스피버거 세트, 불고기 4DX 세트, 모짜렐라인더버거 세트 등 4종에 한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추가 운영한다.

서울관광재단, 방한관광시장 이끌 새 콘텐츠 개발 총력

서울관광재단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즐기는 등산관광 등 팬데믹 이후 해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산 구름전망대에서 시원한 풍광을 감상하는 사람들(왼쪽 사진)과 북한산 국립공원을 상징하는 명소 중 하나로 도심 등산관광 일반인 코스의 주요 경유지 중 한 곳인 북한산성 대동문.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도심 등산관광 명소 '북한산' 매력 극대화"

길기연 대표 "콘텐츠 개발로 경쟁력 높여야"
북한산,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산악관광 가능
트래킹부터 암벽등반 등 다양한 코스 개발
자치구·블랙야크와 등산관광센터 협업 체결
관광객들에 등산복·스틱 등 각종 장비 대여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가시화되면서 산업 각 분야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혹독하게 겪은 관광산업도 요즘 국제관광교류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거의 단절됐던 인바운드(해외서 국내로 입국) 관광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가간 경쟁은 벌써부터 치열하다.

서울의 관광산업·정책을 이끄는 야전본부격인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요즘 팬데믹 이후 해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콘텐츠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북구·도봉구와 등산관광 개발 협약

서울 등산관광은 서울을 찾은 방문객이 도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근교 산을 찾아가 등산과 관련 콘텐츠를 즐기는 자연관광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문화관광연구원이 '코로나 이후 한국여행 의사가 없다'는 해외 관광객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코로나 감염 우려'에 이어 '관광 매력 부족'이 두 번째로 많았다. 또한 이 조사에서 방한관광시장의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 대만 관광객들은 '해외여행 때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자연풍경 감상'을 1위나 2위로 꼽았다.

서울 등산관광은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가 2021년 7월 취임 후 수도 서울을 대표할 새 시그니처 콘텐츠로 공을 들여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길 대표는 그해 10월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관광은 어디를 가든 서울을 포함해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이 중심이나 출발점"이라며 "하지만 도쿄나 베이징 등 뛰어난 인프라의 경쟁도시가 비행기로 3시간 이내여서 자칫하면 뒤쳐진다"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강태선 비와이엔블랙야크 회장(왼쪽부터)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활용한 서울 도심 등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후 서울관광플라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서울은 외국 대도시와 비교해 암벽등반부터 트래킹까지 다양한 산악관광이 가능한 산이 도심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북한산 국립공원이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22개 국립공원 중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국립공원으로, 세계적으로 드문 도심 속 등산관광 자원이다.

길 대표는 "5~10분 정도 차를 타거나 걸어가서 등산관광을 즐기도록 자치구와 손잡고 등산복이나 장비 등을 빌려주는 등산관광센터를 마련하면 생활관광으로 매력을 가질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관광재단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북한산과 인접한 서울 자치구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월3일 강북구, BYN 블랙야크와 등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14일에는 도봉구와도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보·전문가별 맞춤 코스 운영

서울 등산관광은 접근성과 함께 다양한 코스를 갖춘 북한산 국립공원의 매력을 극대화한 콘텐츠가 특징이다. 별다른 등산경험이 없거나 가족이 함께 해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일반 코스부터 난이도 있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는 전문가 코스까지 여행 목적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우선 일반 코스로는 우이동에서 출발해 선운각, 대동문을 거쳐 진달래능선까지 가는 코스나 선운각에서 소귀천, 대동문, 용암문, 도선사까지 서울풍경을 감상하는 코스 등이 검토되고 있다.

난이도를 높인 전문가 코스로는 우이동에서 백운탐방센터, 하루재, 백운대까지의 '서울 최고봉 코스'나 선운교에서 능선길, 하루재, 영봉 육모정고개, 파라스파라까지 '서울 최고 조망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핵심시설인 도심등산관광 센터도 착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6월 개관 목표로 첫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Seoul Tourism Hiking Center·가칭)가 북한산우이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인 강북구 BAC센터 5층에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요 등산 루트와 주변 명소 안내, 다국어 안내 서비스, 등산관광을 위한 안전교육을 담당한다. 특히 등산화부터 스틱, 동계장비 등의 각종 장비를 빌려주고 등산관광을 즐기는 동안 짐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추어 별다른 준비 없이도 국내외 관광객이 북한산이 가진 매력을 만끽하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강북구에 이어 도봉구도 연내 등산관광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진정성 있는 ESG경영"…현대백화점그룹, 통합 ESG 브랜드 '리그린·위드림' 공개

〈환경 부문〉 〈사회 부문〉

산림청과 연계해 숲 조성…탄소중립 실천
저소득층·장애인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

현대백화점그룹이 17일 통합 ESG 브랜드인 '리그린'(Re:Green)과 '위드림'(We:Dream)을 선보였다.

통일되고 일관된 브랜드를 통해 임직원과 고객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도다.

환경(E) 부문의 경우, 브랜드와 슬로건을 '리그린'과 '다시 그리는 지구'로 각각 정하고 탄소중립 경영을 실천한다. 산림청과 연계해 경기 용인에 탄소중립의 숲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나무 1만 여 그루를 식재한다.

통합 ESG 브랜드 '리그린'과 '위드림'을 소개하고 있는 현대백화점그룹 직원들.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그룹

사회(S) 부문은 '함께 키우는 미래의 꿈'이라는 의미가 담긴 '위드림' 브랜드를 앞세워, 저소득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올해 만성질환 가족을 돌보는 24세 미만 청년을 뜻하는 '영케어러'와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새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한다. 또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위생과 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도 확대한다.

회사 측은 "ESG 브랜드 론칭을 바탕으로 유통, 패션, 리빙 등 각 계열사별 특성을 살려 진정성 있는 노력과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투자를 확대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에 희망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하이원리조트, 워터월드 재개장…할인 이벤트도

국내 워터파크 중 4번째로 큰 정선 하이원리조트 워터월드(사진)가 고객맞이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실내 패밀리존을 먼저 개장했고 5월 아일랜드존을 시작으로 7월 포세이돈 존까지 실외시설도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하이원리조트는 워터월드 오픈을 기념해 5월2일까지 청소년(소인) 고객을 대상으로 종일권을 1만 원에 판매하고 전 입장객에게 선베드를 20% 할인한다. 호텔 및 콘도 객실과 워터월드 2인 이용권으로 구성된 패키지도 최대 34% 할인해 연중 상시운영한다.

애경산업, 홍대 지역 상가에 손소독제 전달

애경산업이 5월 말까지 홍대 지역 상권 위생 강화를 위한 '랩신, 홍대를 물들이다' 캠페인(사진)을 실시한다. 랩신은 생활위생을 연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위생 전문 브랜드다. 애경산업 본사가 위치한 홍대 상권의 식당, 카페, 헬스장, 헤어샵 등을 직원들이 방문해 랩신의 손소독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홍대 지역 소상공인의 위생을 강화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 회사 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의 선한 영향력이 홍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목 디스크, 증상 심하면 일상생활 위협
재발률 낮은 인공디스크치환술로 치료

목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나 잘못된 자세, 생활습관으로 인해 추간판으로 불리는 디스크가 탈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목에 통증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뒷목과 어깨까지 뻐근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목 디스크가 심해지면 팔과 손에 감각이상과 저림 증상이 동반되며 이후에는 신체의 마비가 나타나기도 해 방치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초기에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운동치료 혹은 생활습관 개선 등의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 통증이 심각한 경우는 신경성형술과 같은 비수술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디스크의 변성이 심각하고 사용이 어렵거나 신경압박이 심한 경우, 디스크의 재발이 잦은 경우, 일상생활이나 밤에 잠이 들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한 중증이면 수술적 치료 중 하나인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경추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사용이 어려운 디스크를 제고하고 인공 디스크 구조물을 삽입해 기존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시켜주면서 척추의 움직임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수술법이다. 기존 디스크를 반영구적인 인공디스크로 교체하기 때문에 재발 우려가 없다.

수술하지 않은 인접 척추 관절에 대한 퇴행성 변화가 가속될 위험이 적고, 안정적인 최소절개로 출혈이나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고 수술시간도 줄어 환자 부담도 줄었다. 수술 후 즉각적으로 통증 완화는 물론, 수술 후 보조기 착용도 거의 필요 없어 일상으로 편한 복귀까지 가능하다.

고난도 수술 중 하나로 전문 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전문의를 통해 수술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정부 연세고든병원 **최현민** 병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